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 4월호

*임팩트온의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는 매월 분야별 ESG 트렌드를 주제별로 정리해 제공하는 연중 기획 시리즈입니다.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4월호 | Monthly ESG Trend Report

임팩트온 홈페이지 <http://www.impacton.net/>

조사 및 작성

01 ESG 정책 임팩트온 송준호 에디터

02 에너지 & 산업 임팩트온 송선우 에디터

03 전기사 산업 임팩트온 홍명표 에디터

04 ESG 투자 임팩트온 이재영 에디터

05 기후테크 임팩트온 김환이 에디터

06 이달의 핫이슈 임팩트온 박란희 편집장

편집 디자인 임팩트온 이승진 디자이너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01 ESG 정책

Key Takeaways

-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태양광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관세를 강화하고 있다. 우회로를 통한 중국 제품의 수입도 차단하는 정책을 마련 중이다.
-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통해 15~30%에 달하는 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지만, 중국을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중국은 보복관세와 보조금 마련, 유럽과 미국의 보조금 제도에 문제 제기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보조금을 확보하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다.

|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 강화 트렌드

기후 통상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강력한 규제책을 계속 내면서, 대선 이후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런 기초를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의 제품들에 대한 주요 통상 규제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 제품이 자국으로 수입되지 못하도록 관세 장벽을 높이 쌓고 있다. 백악관은 4월 17일(현지 시각)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지적하며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관세를 현재 7.5%에서 25%까지 3배 올릴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철강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태양광 산업에 대한 관세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한화큐셀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도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공식 청원한 바 있다. 4월 17일(현지 시각) 로이터는 미국 정부가 양면형 태양광 패널 면제 조치를 폐지해달라는 태양광 기업 한화큐셀의 요청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전기차 배터리 수입을 금지하는 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6일(현지 시각) 미국 하원의원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는 아동 착취와 강제노동으로 채굴된 코발트의 미국 시장 진출 방지 법안(HR 7891)을 발의했다. 강제노동 제품의 수입은 이미 불법이지만, 중국이 우회로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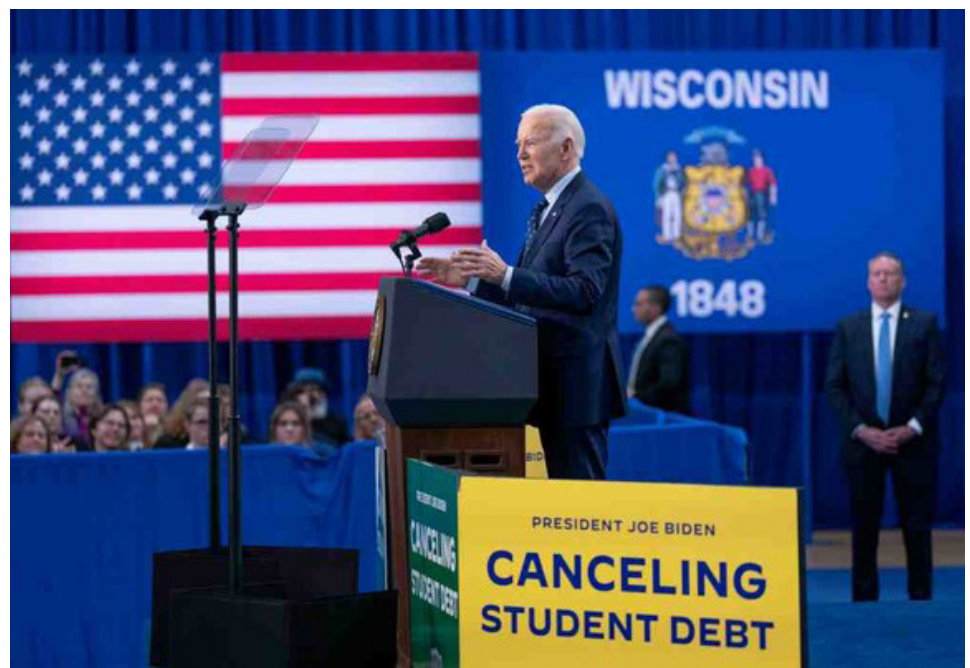
스미스 의원은 “중국이 전 세계 코발트의 90%를 가공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콩고민주공화국(DRC)에 있는 중국 소유 광산에서 생산된다”며 “채굴된 코발트가 중국으로 보내졌다가 전기차 부품으로 가공되어 유럽, 캐나다,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이에 대한 현장실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주요 우회로로 주목되고 있는 [멕시코에서도 중국 봉쇄령이 내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4월 초 멕시코를 통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 회피를 막기 위해 멕시코 측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당국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실제로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에서 들어오는 일련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관세인상 적용 품목에는 철강, 알루미늄, 섬유, 플라스틱, 화학제품 등 총 544개가 포함됐으며, 35%의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철강수입업체들은 통관 시 제강 장소 등을 기재한 원산지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미국 국무부는 더 나아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압박을 받은 국가들에게 대응책을 조언하는 것을 목표로 한 비공식적인 전문팀](#)을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차관 사무실에 근무하는 정책 조정관인 멜라니 하트가 이 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명으로 구성되는 이 팀은 정부 기관이 아닌 ‘회사(firm)’의 명칭을 사용해 컨설팅 회사처럼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 이후에도 친환경 영역에서의 기초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청정에너지 사업허가 신청 간소화](#) ▲[석탄발전소 및 신규 LNG발전소 규제](#) ▲[청정에너지 40억 달러 세금공제 프로젝트](#) 등이 있다.

(그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금속제품에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 백악관 웹사이트



| EU의 강력한 중국 견제와 역내 산업 경쟁력 약화 딜레마

EU는 친환경 정책의 주도권을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 왔지만, **강력한 정책이 도리어 EU 역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유럽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ECA)은 22일(현지시각) 룩셈부르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EU의 친환경 정책이 **모순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2035년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중국, 또는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 소비자들의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기후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EU의 역내 산업 경쟁력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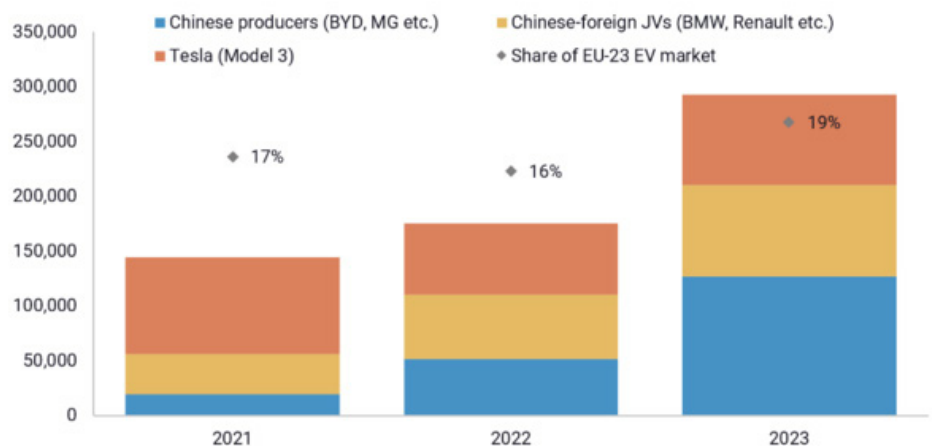
ECA는 대표적인 친환경 정책인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U는 2035년까지 새로운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차 등 저탄소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러나, ECA는 여전히 **비싼 전기차 가격**, 충전 인프라 부족, 수소 및 바이오 연료 등 대체 연료의 낮은 신뢰성 등으로 해당 시기까지 충분한 전기차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여 재검토 의견을 낸 것이다. 문제는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정책이 보류되면 2050년 탄소중립 기후목표 달성도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일부 친환경 정책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역내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견제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경쟁력이 위협받는 주요 산업으로는 전기차와 관련된 배터리가 지목됐다. ECA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가격은 EU의 광범위한 지원에도 여전히 높다. EU 역내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전 세계 배터리 생산 비중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원자재 부문에서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다.

EU는 대안으로 관세 장벽을 준비하고 있지만, 중국을 견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0월 4일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차와 관련한 보조금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림)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파란색, 노란색)은 2021년 이후로 급격히 성장해왔다./로디움그룹

FIGURE 1
Made-in-China EV sales and market share in Europe
Units sold, market share in percent



미국 컨설팅업체 로디움그룹은 29일(현지 시각)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EU의 불법 보조금 조사가 몇 주 내 마무리되겠지만 이는 전기차 수입을 억제할 만큼 강력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유럽위원회(EC)가 15~3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돼도 중국에 기반을 둔 제조업체들은 비용적인 이점이 크므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유럽이 중국 전기차 수출업자들에게 매력 없는 시장이 되려면 관세가 최소한 40~50%는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U는 전기차 외에도 [중국의 태양광업체에 대한 불법 보조금을 조사](#)하고 있으나, 관세 장벽이 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 보복 관세와 WTO 제소, 보조금 정책 강화로 역공하는 중국

중국도 미국과 유럽의 관세정책에 통상규제와 산업경쟁력 강화의 두 개 트랙으로 역공을 가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유럽의 [고율 관세에는 먼저 '보복 관세'로 응수](#)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26일(현지 시각)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 17조는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중국산 제품에 지나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헨리 가오 싱가포르경영대 교수는 "외국이 중국을 관세로 공격하면 중국도 똑같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제공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중국은 미국이 IRA법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제한 규정을 확정할 지 3개월만에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지난 1월 미국 정부는 IRA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적용 기준을 강화해 세액공제 지급 대상 모델을 2023년 43개에서 2024년 19개로 절반 이상 줄인 바 있다.

(그림) 비야디(BYD)는 1300만원 정도의 초저가 전기차를 출시하며, 저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중국 산업정보기술부



중국은 자국 전기차 기업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도 공개했다. 중국 미디어인 글로벌타임스는 27일 중국 7개 부처가 연말까지 중국 소비자가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바꾸면 최대 1만원(약 188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는 저가 공세를 이어가는 비야디(BYD)를 포함한 중국의 자동차기업들의 가격 경쟁이 더욱 매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의 대응책 - 전환 기간 요구와 공급망 재편

한국은 미, 중, EU의 통상전쟁 속에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전기차 등 주요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은 중국에 의존도가 높는데, 중국산 광물을 쓰면 미국의 IRA 등이 제공하는 정책 지원금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6일(현지 시각) 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상무부에 미국의 중국 배제 전략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과 미국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특정 종류의 면제나 전환 기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기차 보조금 제도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반도체 및 배터리 제조 산업을 중심으로 IRA 보조금을 활용하여 첨단 기술 시설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반도체 관련 시설을 개발하는데 400억달러(약 54조원)를 투자할 예정인데, 최대 64억달러(약 9조원)의 연방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배터리 제조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도 IRA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들이 2030년까지 북미 전체 배터리 용량의 44%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조금이 차질 없이 지급된다면, 국내 기업의 대미 영향력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제공



보조금 지급이 산업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국내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안덕근 장관도 “마·중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많은 국가들이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고 이는 전통적인 한국의 무역의 다각화를 가져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기업들은 새로운 공급처를 개척하고 있다. 멕시코가 니어쇼어링 효과로 한국 기업에게도 주목 받고 있다. 예컨대,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광산 기업인 앤스리소스로부터 멕시코산 리튬을 5년간 매년 4000톤씩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Editor’s Comment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격돌하고 있다. 양국은 서로의 보조금 제도가 시장 경쟁력을 해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이 상호주의에 따른 보복 관세를 들고나오면서 관세 정책이 직접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했다. 유럽도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중국과 미국에 비해서는 미약한 상황이다.

한국은 재편되는 통상 지형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활로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상무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기업은 공급망 다각화 등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02 에너지&산업

Key Takeaways

-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화석연료업계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주주제안에 골머리를 앓는 중이다. 호주에서는 세계 최초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전면 수정하라는 주주제안이 통과됐다.
- 주요 글로벌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에너지 전환의 가교역할로 삼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급망 이슈, 지속된 고금리 환경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환 연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논리다.
- AI수요의 폭증으로 인해, 덩달아 전력 수요 또한 급증하면서, 이를 비즈니스 기회로 삼기 위한 에너지 업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IT업계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보를 우선시하고 있으나, 천연가스 업계는 상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메리트를 기반으로 사업 기회를 모색중에 있다.

주총시즌 맞은 에너지 업계, 기후변화 대응 강화 요구하는 투자자들

월말부터 미국, 유럽, 호주 등이 주주총회 시즌에 돌입하면서, 에너지 업계는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주주 제안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호주 최대의 화석연료기업 우드사이드(Woodside)는 2050 탄소중립 계획에서 천연가스를 에너지 전환의 가교 역할로 삼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제는 우드사이드가 이를 근거로 호주 서부 해안가에서 대규모 가스전 사업, 스카보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는 점이다. 해당 가스전은 사용 기간 동안 무려 8억7800만톤에 달하는 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주주들은 우드사이드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이 파리기후협약에 부합하지 않느냐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지난 4월 22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58%의 주주들이 우드사이드 측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 ‘반대’ 표를 던지며 주주제안이 통과됐다. 이는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정 요구가 통과된 세계 최초 사례다. 우드사이드는 지난 2022년에도 같은 주제의 주주제안을 받았으나,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지 못했다.

많은 에너지 기업들이 탄소중립목표를 하향한 가운데, 호주 최대 화석연료 기업의 기후변화대응계획 전면 수정이라는 주주요구가 통과되면서 에너지 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하향된 탄소중립목표와 기후변화 대응계획이 주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친환경 사업투자와 화석연료사업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에퀴노르와 셸 또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후변화대응계획을 강화하라는 주주들의 압박을 받고 있다. 에퀴노르의 경우, 샘펜션(Sampension), 웨스트 요크셔 연금펀드 등 연금펀드의 주도로 기후변화대응계획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셸의 경우, 주주행동기관 팔로우 디스(Follow This)의 주도로 주주제안이 제출되었으며, 악사(AXA), 아문디(Amundi) 등 셸의 총 지분 5%를 보유한 주요 기관들이 해당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에퀴노르와 셸의 주주총회는 각각 5월 14일과 5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그림) 전세계 기업 기후대응에 대한 주주투표 반대비율 상위 10건/ Market Forces (임팩트온 정리)

전 세계 기업 기후대응계획에 대한 주주투표 '반대' 상위 10건에너지&산업

회사명	본사 위치	찬성	반대	날짜
Woodside Energy Group	호주	42	58	2024년 4월 22일
Woodside Energy Group	호주	51	49	2022년 5월 19일
Santos Ltd.	호주	63.1	36.9	2022년 5월 3일
AGL Energy	호주	69.3	30.7	2022년 11월 15일
Glencore Plc	스위스	69.7	30.3	2023년 5월 26일
Glencore Plc	스위스	76.3	23.7	2022년 4월 28일
Credit Suisse Group	스위스	77.6	22.4	2023년 4월 4일
APA Group	호주	79.4	20.6	2022년 10월 19일
M&G	영국	79.6	20.4	2022년 5월 25일
United Utilities Group	영국	80.6	19.4	2022년 7월 22일
Barclays	영국	80.8	19.2	2022년 5월 4일

글로벌 이해관계자,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에너지 전환 가교 역할 주장

HD현대 정기선 부회장이 참석한 세계경제포럼 특별회의에서는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 성장 및 에너지’라는 주제로 여러가지 이야기가 오갔다. 여기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가교역할을 하는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전환연료(Transition Fuel)’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쿠웨이트의 물류회사 어질리티(Agility)의 타렉 술탄(Tarek Sultan) 부회장은 [세계경제포럼에 기고글을 게시](#)하며,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해당 기고글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가장 먼저 지적한다. 태양광이나 풍력에너지는 상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공급이 불안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저발전원 중 비교적 탄소배출량이 낮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활용해야한다는 것이 주된 논리다.

두번째로 타렉 술탄은 전력망 문제를 지적한다.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에서 전력망에 연결되지 못한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는 2022년 기준 무려 2000GW에 달한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 각각 약 150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가 전력망에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 인프라가 설치되기 전까진 원자력이나 천연가스 등의 중앙집중형 전력에너지가 쓰여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고글은 맥킨지의 분석을 인용하며, 2030 탄소중립 중간목표 달성을 위해선 2021년 대비 그린수소의 용량이 200배, CCS의 용량이 100배 증가해야하며, 재생에너지의 용량도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친환경 인프라 설치에 대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에너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JP모건 또한 화석연료사용 점진적 폐지에 대한 ‘현실직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JP모건의 글로벌 에너지 전략 본부장 크리스찬 말렉(Christyan Malek)은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남은 가운데, 글로벌 경제의 환경 변수가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글로벌 에너지 전략 또한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P모건은 ▲높은 인플레이션 ▲급증하는 정부부채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요 위협요인으로 제시하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JP모건은 재생에너지 투자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에너지 전환의 가교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JP모건은 화석연료와 저탄소에너지 사업에 동시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AI 수요 폭증으로 인해 에너지 산업 수혜 전망

인공지능(AI)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로 데이터 센터 건설이 폭증하면서, 이에 대한 에너지 및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9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약 30GW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파인 게이트 리뉴어블\(Pine Gate Renewables\)](#)은 친환경 인프라 투자 전문회사 제너레이트 캐피탈(Generate Capital), 온타리오 연금계획, 호주 연금회사 헤스타(Hesta)로부터 총 6억5000만달러(8950억 달러)를 투자 받았다고 밝혔다.

파인 게이트의 CEO 벤 캐트(Bet Catt)는 AI 인프라의 폭증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 회사의 주요 고객들은 IT기업들이며 이들은 AI로 인한 데이터 센터 수요 폭증으로 인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며 “이러한 IT기업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수립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시장에서의 수요가 급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천연가스 업계 또한 AI의 수요 증가로 인한 수혜를 전망하고 있다.

미국 최대의 천연가스 생산기업 EQT 코퍼레이션의 CEO 토비 라이스(Toby Rice)는 “AI 기술로 인해 에너지 수요가 폭증하면서, 천연가스업계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또한 에너지 인프라 전문 투자회사 에너지 캐피탈 파트너스(Energy Capital Partners)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통한 데이터 센터 가동이 늘고 있는 것이 많지만, 천연가스만이 상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실제 천연가스는 미국 전력생산에서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천연가스의 발전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의 경우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일례로 S&P의 전력 재생에너지부의 시조우 조우(Xizhou Zhou) 본부장은 “IT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탄소중립 서약을 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우선적으로 찾을 것이며, 재생에너지의 보급 증대로 가스발전은 서서히 하락세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제품



| Editor's Comment

에너지 업계는 기후변화 대응과 수익성 확보라는 기로 사이에서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셀, 우드사이드, 엑손모빌 등 전통 에너지 기업들은 화석연료 채굴과 재생에너지 투자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했으나,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외부 이해관계자와 글로벌 트렌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사업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The image shows a large, light gray watermark of the 'IMPACT ON' logo. The logo consists of the word 'IMPACT' followed by 'ON'. The letter 'P' in 'IMPACT' and the letter 'O' in 'ON' are stylized with a vertical orange bar passing through their centers. The rest of the letters are in a simple, bold, sans-serif font.

03 전기차 산업

Key Takeaways

- 지난달까지만 해도 중국 EV를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EV제조사들이 합종연횡하는 분위기였는데 4월부터는 중국 EV 브랜드와 협력하는 브랜드들이 미디어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 전 세계 리튬 시장을 쥐고 흔드는 중국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계속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NASA 기술까지 상용화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이 가동에 들어가 제법 발빠른 대처를 보여줬다.
- 아직 주인 없는 EV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 트럭의 전기화 시장을 놓고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승용차를 넘어서 이제는 대형 트럭까지 전기화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 EV와 타국 기업의 제휴 늘어, 니오(Nio) 안전과 판매에서 선전

중국의 BYD가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누르고 세계 1위를 차지하자, 사방에서 중국 EV를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의 유명 EV 브랜드와 다른 나라 자동차 제조사의 전략적 제휴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먼저,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의 명차 메르세데스가 중국의 BYD와 손잡고 고급 EV를 내놓았다. 세단은 아니고 슈팅브레이크라는 스타일의 승용차다. 자세한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관은 포르쉐의 파나메라와 비슷한 분위기다.

또 다른 독일 브랜드 폭스바겐은 자동차 판매량을 놓고 도요타와 세계 1위를 다투고 있지만, EV에서는 아직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다. 폭스바겐은 중국의 샤오핑(Xpeng)과 협력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폭스바겐은 샤오핑의 EV 플랫폼을 중국에서 생산, 판매하는 폭스바겐 EV에 사용한다는 내용이였다. 폭스바겐은 30여 년 전부터 중국에서 산타나(Santana)와 같은 승용차를 생산할 정도로 중국과 인연이 깊은 브랜드이고 외국 브랜드로서는 중국인들에게도 친숙하다.

현대차도 중국오토쇼에서 CATL과 협력, CATL의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발표가 4월말 나왔다. CATL의 배터리를 베이징 현대차가 사용, 중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차 EV에 장착할 것으로 보인다.

EV 배터리 연구는 4월에도 활발히 일어나, 특히 미일이 돋보여

한편, 리튬, 코발트 등 EV 배터리에 필요한 금속을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 리튬의 공급망도 쥐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NASA의 우주 기술을 상용화해서 백금 대신 니켈을 사용한 니켈 수소 기반의 배터리를 개발한 [에너베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백금은 값이 너무 비싸서 이 기술을 상용화하기엔 무리가 있었으나, 에너베뉴는 2020년 백금을 니켈로 대체해서 획기적인 배터리를 개발했다. 단점은 배터리의 크기가 커서 EV 또는 그 이상의 공간에 적합하다는 것. 그래도 시제품을 보고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고 한다. 수명이 30년 정도로 상대적으로 폐배터리의 문제도 적고 EV업계의 주목을 받을 만하다.

한편, 북미 최초로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이 4월에 문을 열었다. 국내에도 사업체가 있는 [그린 라이온](#)은 12시간 만에 폐배터리의 성분을 순도 99%로 재활용하는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리튬 이온 배터리 재활용의 선두주자인 그린 라이온은 공장의 설비가 모듈식으로 해제, 조립할 수 있어서 신속하게 시설을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게다가 폐배터리의 전과정을 한 공장에서 처리해서 효율도 높다고 한다.

[테슬라의 공동 창업자인 JB 스트로벨\(Straubel\)](#)은 최근 자신이 세운 레드우드 머티리얼즈가 2028년까지 연간 130만 대 이상의 EV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의 배터리 원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공장을 세운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 NEF에 따르면, 중국은 리튬 정제 능력의 70%, EV의 다른 중요 재료 생산의 95%를 장악하고 있다. 레드우드 머티리얼즈가 중국의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에 타격을 가할 지도 모른다.

(그림) 닛산의 독자적인 전고체 배터리(ASSB)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를 비교 설명하는 그림./닛산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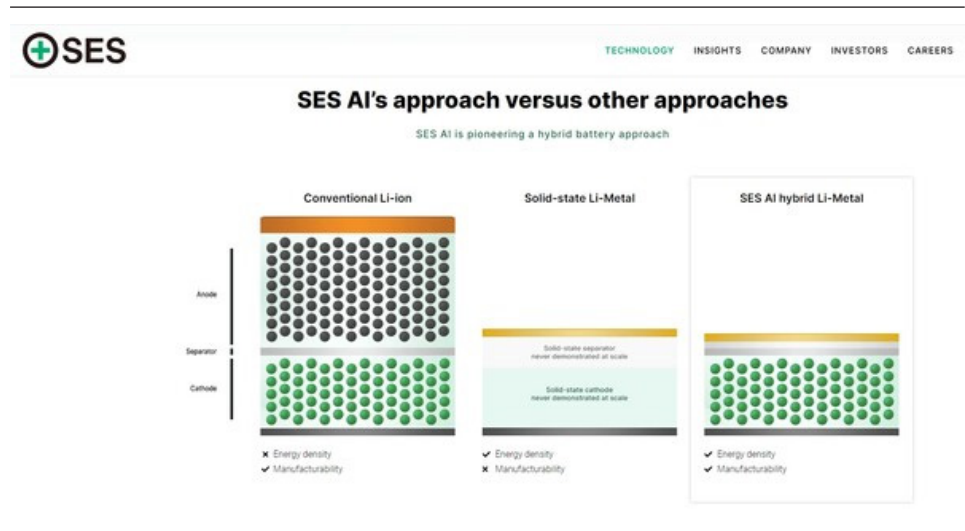
4월에는 **닛산**이 EV 업계에서 뉴스를 많이 내놓았다. 2028년부터 닛산이 독자적인 전고체 배터리를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ASSBR라 이름 붙인 이 배터리는 닛산 뿐 아니라 미쓰비시, 르노의 EV에도 장착될 예정이다. 또한 닛산은 도쿄 인근의 요코하마에서 전고체 배터리 공장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테슬라가 떠오르기 전에 리프(LEAF)로 세계 최대 EV 판매량을 자랑했던 닛산이 옛 영광을 되찾을 지 흥미진진하다.

LG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화학은 미국의 팩토리얼 (Factorial Inc.)와 함께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키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EV리포트에 의하면, 이번 협업으로 기존 LG화학의 양극재, 분리막, 바인더 등 배터리 소재 분야 R&D 강점과 팩토리얼의 FEST®(Factorial Electrolyte System Technology) 간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팩토리얼은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와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동시에 충전당 더 긴 주행거리와 안전성 같은 우수한 성능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팩토리얼의 FEST®기술은 상온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셀 성능을 제공하며 기존 배터리 제조 기술과 호환된다. 이 회사는 또한 메르세데스-벤츠, 스텔란티스 및 현대차 같은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와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현대차와 기아는 중국 청년이 창업한 리튬메탈 배터리 전문기업 **SES AI**와 협력해서 경기도 의왕에 하이브리드 방식의 리튬 메탈 배터리 공장을 세운다고 발표했다. 이 공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리튬 메탈 배터리를 차량에 장착해서 테스트하기 바로 전 단계의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이다.

(그림) SES AI의 하이브리드 방식의 리튬 금속 배터리를 설명하는 그림/홈페이지



| 대형 트럭의 전기화는 미국이 치고 나가되, 유럽도 분주

한편, 승용 EV를 넘어서 이제 대형 트럭도 전기화 추세가 시작됐다. 대형 트럭의 전기화에서는 미국이 앞서 나가는 분위기다.

대형 트럭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인기가 높은 픽업트럭의 경우 포드의 F150 EV의 뒤를 이어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이 출시되더니 상당한 견인력까지 갖춘 대형 픽업트럭 GM 산하 쉐보레의 실버라도 EV까지 등장했다. [GM이 뒤늦게 픽업트럭 EV 시장에 뛰어들었다.](#)

미국은 제도부터 대형 트럭의 EV화를 대비하고 있다. 먼저 미 환경보호청(EPA)이 대형 트럭의 배출 감소를 위해서 [새로운 표준을 내놓았다.](#) 클린트럭계획(Clean Trucks Plan)을 완성하기 위해서 설정한 표준으로 보다 엄격해졌다. 미국 연방정부는 트럭의 배출 규제를 강화해서 청정 기술 차량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연료와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 환경보호청은 청정교통에 대한 투자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2040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배출가스 제로 화물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한다.

미 환경보호청은 4월말 경 중장비 차량에 대한 [10억 달러\(약 1조3610억원\) 규모의 보조금 프로그램](#)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트럭 뿐 아니라, 스쿨버스, 쓰레기 운반차, 배달 트럭 등을 전기화하는데, 동시에 배출가스가 없는 차량 연료 공급 인프라와 인력 개발, 훈련에도 자금을 지원한다.

대형 트럭의 경우 화물칸의 지붕은 상당히 넓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식품 유통기업 [퍼포먼스 푸드 그룹\(Performance Food Group\)](#)은 기존의 디젤 엔진 트럭을 태양광 지원 전기 냉장 트럭으로 전환하고 있다. 클린테크니카에 의하면, 이 회사는 어드밴스 에너지 머신즈(Advance Energy Machines)의 솔라테크TRU라는 장치를 냉장 트럭에 장착해서 냉장 효율도 높이고 연료비도 줄이고 있다.

대형 전기 트럭이라고 하면 테슬라의 세마이 트럭이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4월에는 테슬라의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다. 중국 청년 웬 한(Wen Han)이 2022년에 창업한 [윈드로즈\(Windrose Technology\)](#)는 대형 트레일러 형태의 EV트럭이다. 외관도 테슬라의 세마이 트럭처럼 생겼는데, 4월에 1억1000만 달러(약 1496억원)을 조달해서 화제를 모았다. EV리포트에 의하면, 무공해 및 지능형 장거리 트럭 운송 솔루션 분야를 주도하겠다는 야심을 품은 윈드로즈는 100명 이상의 R&D 전문가와 200개 이상의 특허를 자랑하는 팀을 보유하고 있다.

대형 트럭의 전기화는 미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CNBC의 보도에 의하면, 네덜란드 맥주 하이네켄은 최근 스웨덴의 전기트럭 스타트업인 아인라이드(Einride)와 협력해서 전기 트럭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덴마크 해운물류 대기업 DFDS가 볼보의 전기 트럭을 100대 주문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도 트럭을 많이 만드는 이스즈(ISUZU)가 독일 ZF의 전기 구동 장치를 장착하기 시작했다.

대형 트럭의 전기화는 단순히 연료비 절감과 환경 측면만 노린 것은 아니다. 업계는 대형 전기 트럭의 자율주행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아인라이드는 향후 5-10년은 업계 전반에 자율주행 트럭을 더 배치하는 문제로 분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CNBC가 전했다.

이외의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업체는 중국의 EV 브랜드 니오와 베트남의 빈패스트가 눈에 띈다. 니오는 지난 3월에 고객에 인도한 차량 물량이 14.3%나 늘어났으며, EL6 모델은 유로 NCAP 안전도 테스트에서 별 다섯개를 받아 기염을 토했다.

또한, 베트남의 빈패스트는 유럽의 모비비아(Mobivia)와 제휴해서 독일과 프랑스에서 서비스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빈패스트는 신생 기업이지만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미 등 세계로 맹렬하게 뻗어나가고 있다.

Editor's Comment

전기차 시장의 캐즘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외신에 등장하는 전기차 산업 동향을 보면, 기술개발만큼은 캐즘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기업간 합종연횡이 활발하다. 새로운 시장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 국가와 업종을 넘나들면서 M&A와 기술개발이 한창이다.



04 ESG 투자

Key Takeaways

- 글로벌 지속가능펀드가 1분기 9억달러(약 1조2258억원) 순유입을 기록, 가까스로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미국은 6분기 연속 순유출을 기록하며 사상 최악의 분기를 겪었다.
- ESG가 글로벌 인수합병(M&A)의 주요 결정요소로 부상했다. 글로벌 M&A 고위 관계자 25%는 2024년 거래 억제 요인으로 ESG에 의한 규제, 의무 보고 등을 꼽았다. BHP가 경쟁업체 인수를 추진하는 등 구리업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 유엔이 새로운 지속가능 금융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는 등 기후 목표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가입을 망설이는 등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1분기 지속가능투자, 째짤한 회복세... 유럽과 미국, 디커플링 양상 뚜렷

지난해 4분기 8800만달러(약 1198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한 글로벌 지속가능펀드가 이번 분기 회복세를 보였다. 모닝스타의 [‘글로벌 지속가능 자금 흐름 1분기 보고서\(Global Sustainable Fund Flows: Q1 2024 in Review\)’](#)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지속가능펀드는 전 세계적으로 9억달러(약 1조2258억원)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소폭 반등했다.

순유출은 멈췄으나 회복세는 낮았다. 모닝스타는 지속가능펀드 시장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유럽 투자자들의 전통적인 지지가 과거 대비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 분기 유럽의 유치 자금은 109억달러(약 14조8458억원)로, 1300억달러(약 177조600억원)가 유입됐던 2022년 4분기 대비 약세를 보였다.

한편 미국과 유럽은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유럽은 순유입을 기록한 반면, 미국은 88억달러\(약 11조9856억원\)의 순유출을 보이며 사상 최악의 분기를 겪었다.](#) 모닝스타는 미 투자자들의 관심 자체가 ESG 섹터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분기 미 전체 펀드 규모는 1.4% 성장했으나 지속가능펀드 규모는 3% 감소했다.

모닝스타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높은 금리, 2023년 투자의 낮은 수익률, 에너지 가격 상승, 특히 심화되는 [ESG 정치화 논쟁](#) 등을 꼽았다. 유럽 소비자와 정치인들이 친환경 제품과 기후 관련 규제를 지지해온 반면, 미국은 공화당을 중심으로 반(反) ESG 기조가 득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의 상반된 정치적 기조는 각 지역 금융업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지역 은행들이 화석연료 대출을 대폭 확대](#)하는 가운데, 유럽 은행들은 규제 때문에 미국과의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배경에는 미국 중소은행들의 경영난이 있다. 2023년 3월 미국 실리콘 밸리 은행이 유동성 검색으로 파산한 여파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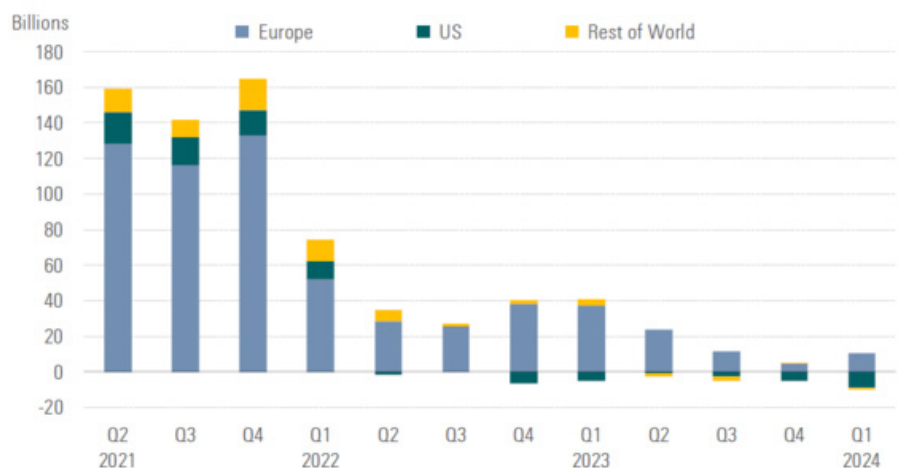
반면 [유럽 은행들은 엄격해지고 있는 ESG 규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ECB(유럽중앙은행)은 유럽은행감독청(EBA)의 분석에 따라 ESG 리스크를 공시에 반영하기 위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규정이 통과되면 유럽의 은행들은 기업 고객이 탄소배출 규제나 원자재값 상승 등 ESG 요소로 파산을 선언, 채무 불이행을 할 경우를 예상해 관련 리스크를 회계 처리에 반영해야 한다. 기후위기가 재무적 요소로 평가되는 셈이다.

유럽 현지 은행들은 규제당국의 요구가 지나치다며 이대로는 미국 은행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블룸버그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최대은행인 JP모건의 시장가치는 장부상 자산가치 대비 1.9배이지만, 유럽 최대은행인 BNP파리바의 시장가치는 장부 대비 0.7배다. 유럽 은행들의 시장가치가 실제 자산가치보다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ECB는 유럽 은행들 중 약 4분의 3은 자연 환경 등 신종 ESG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며 새로운 규정안은 이를 대비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림) 지난 3년 동안의 지역별 지속가능펀드 자금 흐름 / 모닝스타

Exhibit 2 Quarterly Global Sustainable Fund Flows (USD Billion)



Source: Morningstar Direct. Data as of March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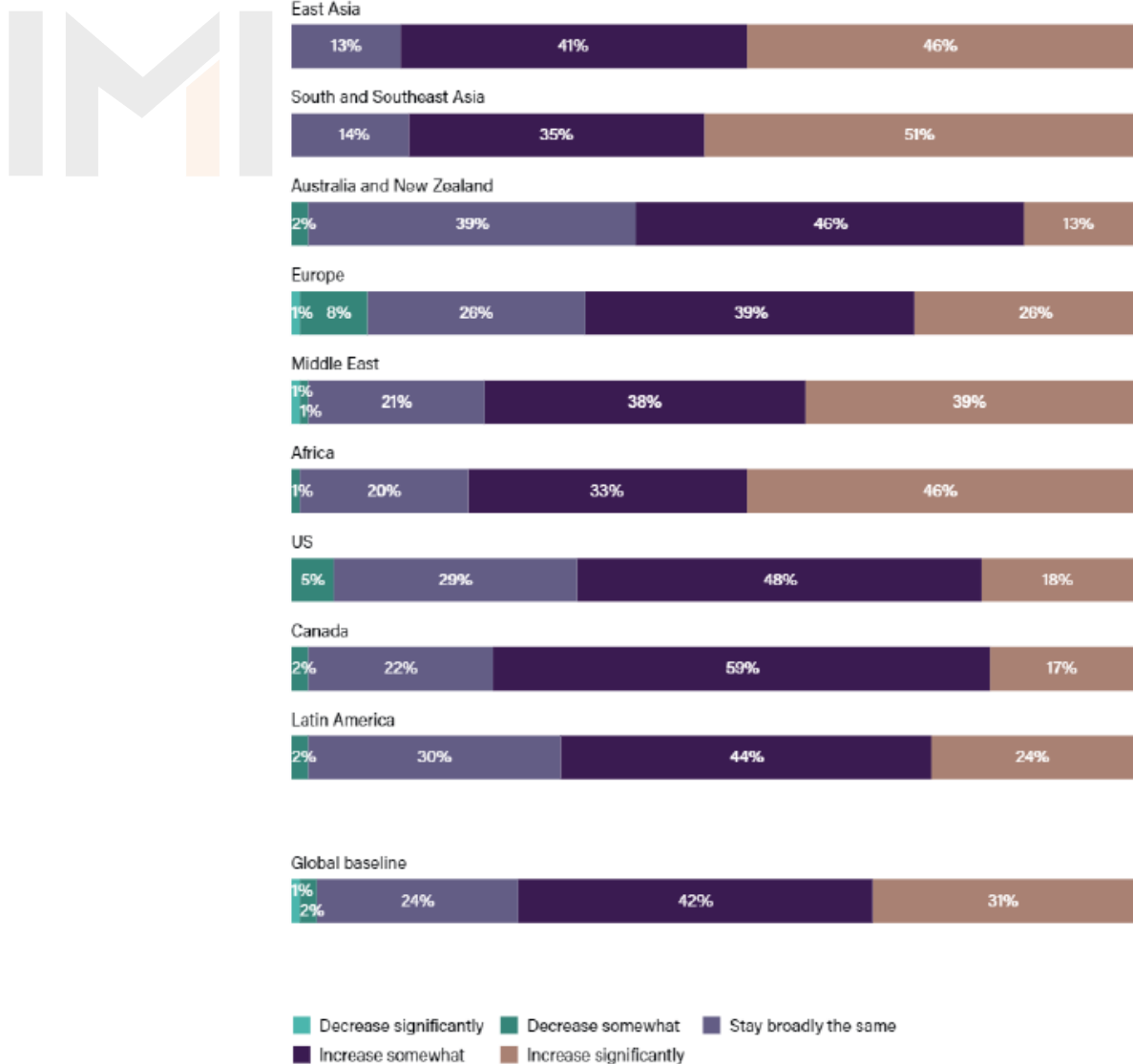
| ESG, M&A '빅 딜' 결정 요소로 부상

글로벌 로펌 노트 로즈 폴브라이트가 최근 내놓은 ‘2024년 글로벌 M&A 동향 및 위험 (Global M&A trends and risks 2024)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M&A 고위 관계자 4분의 1은 ESG 요소가 M&A 거래를 촉진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는 주요 요소로 떠올랐다고 답했다.

기업들이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솔루션 기업을 물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인수 목표가 기후 목표 달성에 있는 만큼, ESG 실적 결과나 ESG 데이터 등 측정 및 검증 요소가 거래 성사의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림)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2024년 M&A 역대 요소로 규제를 꼽았다. / 노트 로즈 폴브라이트

How do you expect the level of ESG-related regulatory scrutiny in 2024 to compare to that seen in 2023 in each of the following regions?
(Select one for each region)



원자재 업계에서는 이미 글로벌 ‘빅 딜’이 진행 중이다. [세계 최대 광산업체 BHP가 경쟁사인 앵글로 아메리칸에 M&A를 제안한 것이다.](#) 딜이 성사될 경우 BHP는 전 세계 구리 공급량의 1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구리 생산업체가 된다.

구리가 ESG 요소가 된 이유 중 하나는 글로벌 기후 목표다. 구리는 송전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전기차 제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친환경 솔루션 생산을 관통하는 주요 금속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약 29킬로그램(Kg)의 구리가 들어가는데, 전기차는 이보다 두 배 이상의 구리를 필요로 한다.

구리 가격은 나날이 고공행진 중이다. 수요는 급등했는데 공급은 줄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강화된 탓도 있지만, 광산의 질적 하락 문제도 크다. 상대적으로 채굴이 쉬운 지표면 인근 광산이 거의 고갈되면서 새로운 매장지를 발굴해야 하는데, 광산 지하 강도가 깊어지면 채굴 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광물의 질도 하락한다. 낮은 품질의 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보다 더 많은 가공이 필요하다. 이는 자연스럽게 원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앵글로 아메리칸은 390억달러(약 53조1180억원)라는 BHP의 첫 인수 조건을 거절했다. 이는 거래가 제시된 전날 주식시장 증가보다 14% 높은 수준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제프리스 그룹(Jefferies Group LLC) 분석가들은 안정적인 입찰 가격은 최근 주가에 28% 프리미엄을 얹은 426억달러(약 58조7241억원)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BHP는 더 나은 조건 제시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다만 제프리스는 구리가 국가 전략 광물이기 때문에, 이번 거래가 성사될 경우 '반독점' 이슈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유엔, 지속가능금융 촉진 드라이브

글로벌 디커플링 기조 속에 지난 4월 유엔은 지속가능금융 촉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넷제로 자산 소유자 연합\(Net-Zero Asset Owner Alliance, NZAOA\)이 ‘제4차 목표설정정의정서\(The fourth edition of the Target-Setting Protocol\)’를 발표, 지속가능성 목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NZAOA는 89개 기관투자자로 이루어진 유엔 주도의 글로벌 투자자 연합으로, 총 운용자산은 9조5000억달러에 이른다. 대표적인 회원사로는 미국 보험사 알리안츠, 영국 보험사 리걸 앤 제네럴, 일본 보험사 닛폰생명보험 등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투자 지침 범주에 민간자본과 국채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NZAOA는 주로 공공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식, 채권 등 민간자본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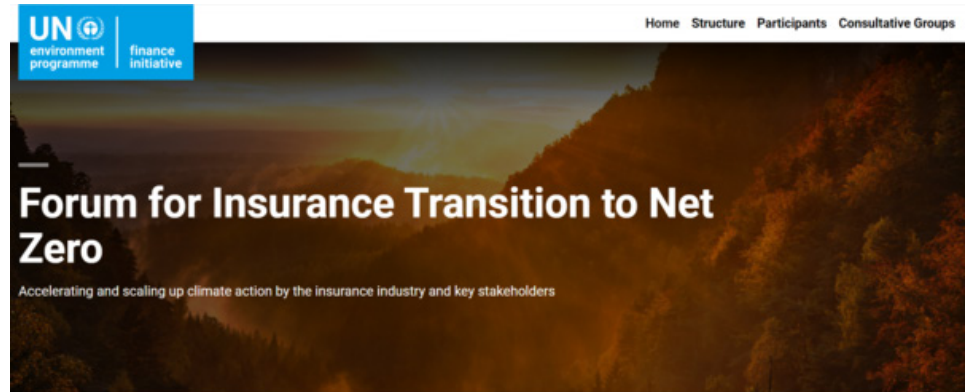
국채도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NZAOA 회원사들은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관련 배출량도 평가 및 보고해야 한다. 회원사들의 투자 포트폴리오 중 국채 비중은 5분의 1에서 3분의 1에 이른다.

새로운 이니셔티브도 등장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넷제로 전환을 위한 보험 포럼(Forum for Insurance Transition to Net Zero, FIT)을 새롭게 출범시킨 것이다. 4월 26일(현지시각) UNEP은 성명을 통해 2021년 창립한 넷제로 보험연합(Net-Zero Insurance Alliance, NZIA)을 해체하고 FIT을 새로 출범, 전 세계 보험업계 및 주요 이해관계자와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NZIA는 지난해 5월 미국 공화당의 정치적 공격으로 글로벌 보험사들이 대거 탈퇴하자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공개 의무 폐지 발표 등 회원사 이탈 방지에 나선 바 있다. UNEP FIT은 NZIA 보다 포용적이고 유연한 구조로 재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프랑스 재보험사 스코르(SCOR)는 “아직 새로운 그룹에 가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독일의 뮌헨 재보험(Munich Re) 또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세계 최대 재보험사 스위스 리(Swiss Re)는 “FIT은 이해관계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어 이니셔티브 참여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림) UNEP이 NZIA를 대체하는 새로운 금융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 / FIT 웹사이트



Editor's Comment

유엔 등 국제기구가 글로벌 금융산업의 기후행동 촉진에 매진하는 가운데, 시장의 반응은 미적지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과 유럽이 상반된 투자 기조를 보이면서, 유럽 정치권이 친환경 금융 정책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05 기후테크

Key Takeaways

- 2024년 1분기 기후테크 투자액은 81억 달러(약 11조원)를 기록했다. 미 연방정부의 지원과 투자에 힘입어 인프라 및 산업의 탈탄소화와 기술 상업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후테크에 시리즈 C-D 규모의 자금이 몰렸다.
- 주요 기후테크 투자 부문은 친환경 철강, 배터리, 광물 등 소재(material)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후테크 기업으로는 H2그린스틸(Green Steel), 어센드 엘리먼트(Ascend Elements) 등이 있다.
- 전기·열 생산과 CCS를 통합한 CFC(탄산염 연료전지) 등 새로운 탄소제거(CD) 기술들이 소개됐다.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탄소제거 기술을 정교하게 개발하고 있어 기존 탄소제거 기술 한계를 장기적으로 극복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24년 1분기 글로벌 기후테크 규모와 분징

미국 시장 데이터업체 피치북(PitchBook)이 지난 4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기후테크 투자 자금](#)이 81억 달러(약 11조322억원)를 기록했다.

총 거래 건수는 244건으로 전 분기 대비 20% 감소했지만, 거래 금액은 작년 3분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거래 가치는 약 400% 증가했다. 위험 부담이 적고 수익 가능성이 높은 성장 혹은 성숙 단계에 있는 기후테크 기업들에게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노스볼트는 지난 1월 46억 유로(약 6조7432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확보했다/노스볼트



올해 초 투자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기후테크는 친환경 철강, 배터리 및 광물 등 소재부문으로,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고성장 기회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대표적인 유럽 배터리 기업 **노스볼트(Northvolt)**는 지난 1월 46억 유로(약 6조7432억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확보했다. 연간 60기가와트(GW) 규모의 배터리 셀 기가팩토리인 ‘노스볼트 에트(Northvolt Ett)’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 투자는 '유럽 내 최대 친환경 대출 규모'로 꼽혔으며 BMW, 스카니아, 볼보자동차, 폭스바겐 등 파트너 고객들이 550억 달러(약 74조9100억원) 이상의 장기 구매 계약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노스볼트는 민간 투자 외에도 **정부 자금 지원**도 받았으며 2026년부터 매년 약 100만 대의 전기차 배터리 셀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1월 EU집행위원회가 9억2000만 유로(약 1조3486억원)의 자금을 승인했으며, 지역 인프라를 구축 및 확장하기 위해 캐나다 연방과 퀘벡주로부터도 각각 10억 달러(약 1조3620억원)를 지원 받을 예정이다.

기후테크 미디어 테크 크런치(Tech Crunch)는 “기후테크는 상당한 기술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 규모는 작은 편”이라며 “올 1분기에 VC와 투자자들은 고객 유치, 재정 수익 등 안정적인 구조가 갖춰진 기후테크 기업들에게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초기 단계에 속해도 혁신 기후테크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말 **도요타 벤처스(Toyota Bantures)**는 3억 달러(약 4086억원) 규모의 신규 기후 펀드를 발표하면서 재생 에너지, 배터리, 수소, 탄소 포집, 제거 및 활용 등 기후테크 스타트업 18건의 투자를 진행했다. 앞으로 기후테크 부문에서 총 8억 달러(약 1조 896억원) 이상의 자금을 운용할 예정이다.

투자 기업으로는 토양 내 탄소 측정 기술을 개발하는 야드 스틱(Yard Stick), 탄소 포집 및 저장하는 나무를 개발하는 리빙 카본(Living Carbon), 저탄소 수소, 메탄올 및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전기 반응 시스템을 개발한 시지 플라즈모닉스(Syzygy Plasmonics) 등이 있다.

| 기술 상업화 · 성장 가능성 높은 기후테크에 투자 집중 흐름

테크 크런치는 상반기 주요 투자거래 기업으로 H2그린스틸(Green Steel), 어센드 엘리먼트(Ascend Elements), 네이트론(Natron), 라일락 솔루션(Lilac Solutions)을 꼽았다.

이 중 스웨덴 녹색철강 스타트업 H2그린스틸이 최대 규모로 투자를 받았다. 스웨덴 북부에 저탄소 철강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부채, 주식, 보조금 조합으로 총 51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 했다. 석탄 대신 친환경 수소를 연소하여 배출량을 최대 95%까지 줄인 철강을 생산할 예정이다. 신규 공장은 초기에 연간 250만 톤의 철강을 생산할 예정이며, 일부 기업 고객들은 향후 5~7년 동안 생산 물량의 절반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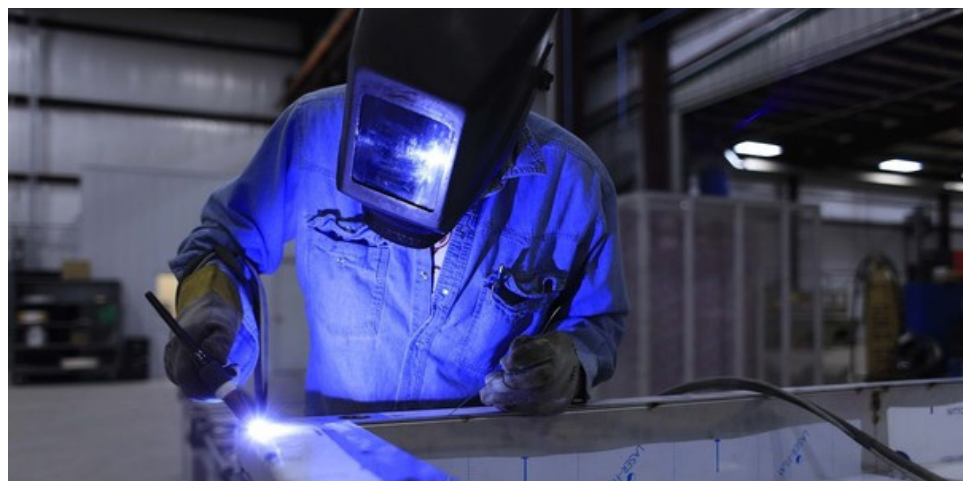
배터리 재활용 업체 어센드 엘리먼트는 시리즈D 라운드를 포함한 총 7억4000만 달러(약 1조78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기업가치가 16억 달러(약 2조1792억원)에 달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재활용 배터리 소재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배터리 제조업체 **네이트론 에너지**는 미시간 서부에 상업적 규모의 공장 건설을 시작하기 위해 시리즈B 라운드에서 1억8900만 달러(약 2574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미국 미시건주 홀랜드에 리튬 이온보다 저렴하면서 에너지 밀도가 낮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연간 최대 600메가와트 생산할 예정이다.

라일락 솔루션은 소금물에서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이온 교환 기술을 개발해 1억4500만 달러(약 1974억원) 규모의 시리즈C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기존 리튬은 증발 연못에서 생산되는데, 이는 막대한 양의 토지와 물 사용으로 인해 환경 오염 문제가 지속됐다. 라일락 솔루션은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리튬을 추출하기 위해 공장 내 모듈식 장치를 운영할 계획이다.

테크 크런치는 “대규모 투자로 인해 기후테크 투자 규모가 부풀려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기후테크 기업들이 상업적 규모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며 초기 기업들도 성숙 단계에 이르면 추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림) 노스볼트는 지난 1월 46억 유로(약 6조7432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확보했다/노스볼트



| DACCS 등 탄소제거(CD) 기술 한계 극복한 신규 기술 선보여

여러 기후테크 부문 중 탄소 제거에 대한 투자 전망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맥킨지는 “향후 25년 동안 전 세계는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30조 달러(약 31경 3260조원)를 투자해야 할 것”이며 “탄소제거는 2035년 이내 연평균 투자가 1750억 달러(약 23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 세계 누적 CCUS 투자의 70% 이상이 아세안 지역, 중국, 인도, 북미에 집중되고 있으며, 투자 대부분은 시멘트, 철강 등 감축이 어려운 부문과 전력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일본 미즈호 은행은 지난 4월 초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진행 중인 탄소 포집 및 저장(CCS) 프로젝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비손 로우 카본 벤처스(Bison Low Carbon Ventures)와 손잡고 초기 기후테크 기업에 투자했다. 투자 규모는 364만 달러(약 49억원)로 지분 투자 형태로 이뤄졌다. 이 CCS 공장은 지질학적 평가 등 건설 승인을 받는 대로 이르면 2025년 중반부터 운영되고 연간 3백만 톤의 탄소를 저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 제거에 대한 투자가 점점 확대되면서 비용, 확장성 등 여러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신규 기술들이 선보이기도 했다.

DACCS(Direct Air Capture with Carbon Storage)는 화학 공정으로 주변 공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고 분리하는 기술이다. 지중이 아닌 지상에서 탄소를 포집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은 편이며 탄소를 포집한 뒤 다른 산업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한 최신 연구에서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보다 DACCS를 활용한 제트연료가 30-40% 가량 저렴해 차세대 항공연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림) 언스플레시



천연 규산염 광물 중 하나인 제올라이트(zeolite)를 활용하여 탄소를 추출하는 공정 기술도 개발됐다. 2023년 6월에 설립된 미국 스타트업 **제오(Zeo)DAC**는 탈취 및 제습 기능이 높으며 내구성이 뛰어난 제올라이트 기반의 흡착 공정 방식을 개발했다. 제오 DAC는 월슨 힐 벤처스 등 기관 벤처 캐피탈과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확보했으며, 칼텍크(Caltech), 코카콜라 파트너스(Coca-Cola Europacific Partners) 등 글로벌 투자 파트너와도 협력하고 있다.

엑손모빌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CCS 기술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킨 탄산염 연료전지(이하 CFC) 기술을 활용한 탄소포집 시범 공장을 건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CFC는 탄소 포집 과정을 전기와 열 생산과 통합하여 기존 CCS 기술보다 에너지 소비를 줄였으며, 탄소 배출을 더 효율적으로 포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부산물로 전기, 열, 수소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시범공장은 유럽연합, 네덜란드 기업청 등 정부 지원을 받았다.

엑손모빌은 지난 4월 말 **실적 발표**에서 "앞으로 이산화탄소는 탄소섬유, 배터리, 재생 에너지 등 여러 산업에서의 핵심 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매년 10%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탄소제거와 탄소 소재 분야에서 성장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Editor's Comment

올 1분기 글로벌 기후테크 투자에 대한 성적표가 나왔다. 기후테크 시장의 불확실성과 기술 위험에 관한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초기부터 성장·성숙 단계 기업까지 기후테크에 대한 투자를 이어왔다. 초기 기후테크 기업들은 기술적 우위와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반면 기업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입증한 기후테크들에게는 더 큰 규모의 자금이 몰렸다.

폐배터리 재활용, 저탄소 철강 등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들이 향후 핵심 기후테크 분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탄소제거 사례처럼 기후테크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록 기술 및 비용 한계는 극복될 것이다. 정부, 산업계, 금융기관들이 협력해 투자 및 거래 환경을 구축하면 기후테크 투자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06 이달의 핫이슈

Key Takeaways

- 미 SEC의 기후공시는 초안 발표 후 2년만에 최종안이 공개됐으나, 소송에 휘말려 시작도 하기 전에 '일단 보류'됐다. 기후 공시가 법적인 테두리로 들어가면서, 규칙을 완화하자는 '타협론'과 규칙을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론' 사이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 SBTi의 스코프3 탄소상쇄권 사용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단적인 예다.
- 호주 연방법원이 세계 2위 자산운용사인 뱅가드에 '그린워싱' 유죄를 선고했다. 기존 지수를 추종했다고 하더라도, ESG 채권펀드와 관련한 투자 방법론을 정확하게 공시하지 않을 경우 그린워싱의 법적 리스크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한편, 그린워싱에 대한 논란은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CCS계획과 같은 저탄소기술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 넷제로 목표 달성에 대한 추적이 시작되면서, 고탄소 기업의 반발 및 항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또 고탄소 기업을 위한 전환금융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움직임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후 공시 법적 테두리로 진입... '타협론'과 '현실론'의 갈등

미국과 EU, 국내에서도 기후 공시 및 ESG 공시 의무화가 속속 진행되거나 발표되면서, 찬성과 반대쪽으로 나뉘어진 그룹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 사건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 제도](#)가 시작하자마자 법적 도전에 부딪히며, 일단 보류됐다. 법적 소송은 이미 예견된 사실이기도 하다.

지난 3월 SEC는 기후공시 초안 발표 2년만에 최종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에너지 서비스 기업 리버티 에너지(Liberty Energy)와 노마드 프로판트(Nomad Proppant)은 법원에 해당 규칙의 심사 중단 처분을 요청했다. 기후공시 도입은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됐으며, 아이오와주 등 공화당 지역구 25개 주에서는 SEC 기후공시에 대해 "기업측에 너무 많은 비용과 부담을 요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등 공시 정보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환경단체 쪽에서도 제기했다. 메이저 환경단체 시에라 클럽(Sierra Club)이 기후공시 최종안이 스코프3 공시 의무를 제외시키는 등 초안보다 규제가 완화됐다고 법원에 SEC를 고소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ESRS를 기준으로 한 ESG 공시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이 기후공시를 늦출 수는 있어도 아예 공시 금지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 자료를 봐도, 이미 글로벌 상장기업의 60%가 기후를 공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MSCI는 4월 ‘MSCI 넷제로 트랙커 보고서’에서 전 세계 상장기업의 60%가 스코프1, 2 배출량을 공시하고 있으며, 40% 이상이 스코프3 배출량 전체 또는 일부를 공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장기업의 5분의 1이 SBT(과학기반 감축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스코프1,2 배출량 공시 비중은 45%에 불과해, 선진국 상장기업 평균인 73% 대비 크게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후공시를 늦추려는 그룹과 기후공시를 더 앞당기려는 그룹간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고 있다. 탄소중립으로의 전환 기간을 최대한 더 길게 확보하려는 기업과 이를 강력 반대하는 규제기관 및 환경단체들의 갈등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게 될 그림이다.

(그림) SEC의 기후 공시 도입이 정지됐다. / 픽사베이



4월에 그 단적인 사태가 터졌다. 넷제로 목표 설정에 관한 가장 까다로운 기관으로 알려진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가 스코프3 목적에 따라 탄소상쇄권 사용을 확장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SBTi 목표가 너무 강력해서 지키기 어려웠던 기업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지만, SBTi 직원들은 이사회 결정에 반발하면서 CEO 사임을 요구했다.

블룸버그는 그 배경에 아마존이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SBTi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아마존 제프베조스 회장이 만든 기후기금인 베조스 어스펀드(Bezos Earth Fund)이며, 2021년 1800만달러의 후원금을 제공할 정도로 주요한 후원자그룹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런던에서 베조스어스펀드가 주최하는 회의에서 SBTi 리더들에게 탄소상쇄에 대한 입장 완화를 요구하는 공세를 펼쳤다고 보도했다. 이에 SBTi는 부인했지만, 이는 넷제로 목표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 탄소상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 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그림) SBTi 홈페이지



| 그린워싱 리스크와 법적 다툼

그린워싱 소송에서 [호주 연방법원이 세계 2위 자산운용사인 뱅가드에 유죄를 선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제기한 그린워싱 소송 중 첫 번째 법정 판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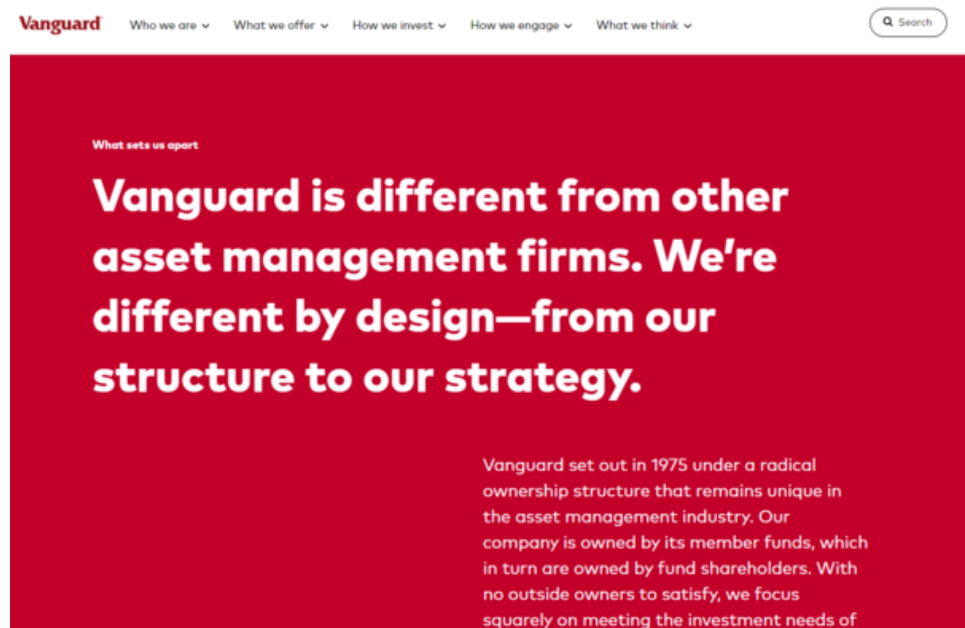
문제가 된 금융상품은 뱅가드의 인덱스펀드이며, 운용규모는 우리 돈으로 약 8700억 원에 달한다. 펀드 이름은 ‘Vanganrd Ethically Conscious Global Aggregate Bond Index Fund’다.

뱅크드의 ESG 채권펀드가 화석연료, 알코올, 담배 등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정유사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했으며, 해당 펀드의 포트폴리오에 석유 메이저 셰브론과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미국 내 송유관 프로젝트, 칠레의 석유업체 자금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뱅크드는 기존 지수를 추종한 것일뿐이며, 2021년초 ASIC에 오류 발견을 먼저 보고했고 투자자 공시도 강화했다고 강화했으나, 대법관은 뱅가드가 상품 설명서, 웹사이트, 언론 보도자료, 인터뷰 등에서 해당 펀드 투자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주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ASIC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업 머서(Mercer)에 뱅가드와 유사한 그린워싱 혐의로 지난해 12월 1130만달러(약 1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림) 호주 연방법원이 뱅가드의 그린워싱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 뱅가드 웹사이트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규제당국은 그린워싱 방지 규정 시행을 앞두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금융감독청\(FCA\)가 오는 5월 31일 그린워싱 방지 규정 시행에 앞서, 소매 투자자뿐 아니라 대규모 기관의 포트폴리오 관리자로까지 적용 기준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최종 규칙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관련 주장이 명확하고 오해 소지가 없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4가지 라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해당 펀드의 70% 이상이 라벨을 지원하기 위해 할당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라벨링 체제는 ▲지속 가능성 포커스(Sustainability Focus) ▲지속 가능성 개선제(Sustainability Improvers) ▲지속 가능성 영향(Sustainability Impact) ▲지속 가능성 혼합 목표(Sustainability Mixed Goals) 등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포트폴리오 관리자를 위해 제안된 라벨링 및 SDR(Sustainability Disclosure Requirement, 지속가능성 공개 요구사항)에는 소비자가 자신의 돈이 무엇에 사용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 라벨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과 'ESG 주장이 뒷받침되도록 마케팅 요구 사항을 도입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린워싱에 대한 비판은 금융상품 뿐 아니라, 기업의 저탄소 기술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엑손모빌의 의 탄소포집계획으로 알려진 영국 ‘햄프셔의 엑손모빌 폴리 정제공장(Fawley refinery)’의 그린워싱 혐의를 영국 유력매체 [‘가디언’이 4월초 보도](#)한 것이다.

[엑손모빌은 2030년까지 폴리 정제공장에서 CCS\(탄소포집 및 저장\) 프로젝트를 시작해, 매년 270만톤의 탄소를 포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는 이곳에 새로운 블루 수소 공장을 건설하고, 2030년에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 주장해왔다. 하지만 엑손이 공동 설립한 ‘솔런트 클러스트(Solent Cluster)’는 지난해 폴리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을 신청했지만 탈락했으며, 아직 영국 정부로부터 탄소저장고에 대한 라이선스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엑손모빌은 아직까지 이 공장을 자체적으로 짓기 위한 자체자금 투입을 거부하고 있으며, 대신 이 공장에서 디젤 생산량을 늘리는 데 투자를 집중, 하루 600만파운드를 추가로 생산한다는 것이다. 그린얼라이언스 싱크탱크의 정책책임자인 더스틴 벤튼은 가디언에 “CCS는 넷제로 도달을 위해 필요해 보이지만, 그 기술은 석유와 가스를 시추하거나 휘발유 및 디젤 생산을 확대하는 구실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림) 영국 햄프셔 지방에 위치한 폴리 정유소 전경의 모습./ 엑손모빌



| 넷제로 목표와 전환계획 공시

한편, 넷제로 목표 달성에 대한 추적이 시작되면서, 한편에서는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운 업종이 존재하며, 이들을 위한 전환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

먼저 [셸은 네덜란드 법원이 2021년에 내렸던 탄소 감축명령에 항소했다](#). 2021년 5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세기의 판결’이라 불리는 판결을 내렸는데, 셸에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45% 감축할 것을 명령했다. 셸은 “2021년 판결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며 “네덜란드 법에 따른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셸은 지난 3월에는, ‘에너지 전환전략 2024’를 발표하며, 2030년 스코프 3 저감 목표를 기존 20%에서 15~20%로 약화시키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항소의 결과가 유럽 석유산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블랙록은 2030년대 중반까지 에너지 전환에 매년 4조달러(약 5513조원)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는 [‘전환시나리오 보고서\(Investment Institute Transition Scenario\)’](#)를 펴냈다.

전환투자는 주로 탄소집약적 산업이나 기업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주목적을 두는 전략이다. 블랙록이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투자된 금액은 1조8000억달러(약 2481조원)로 2004년 330억달러(약 45조원)에서 크게 증가했다. 누적으로는 약 19조달러(약 2경6192조원)가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머징 마켓에서는 필요한 자본의 60%가량이 민간 부문에서 나올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 책정과 시장 규제의 완화와 같은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블랙록은 이머징 마켓에서 혼합금융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큰 투자 동인이 되리라고 분석했다.

(그림) 언스플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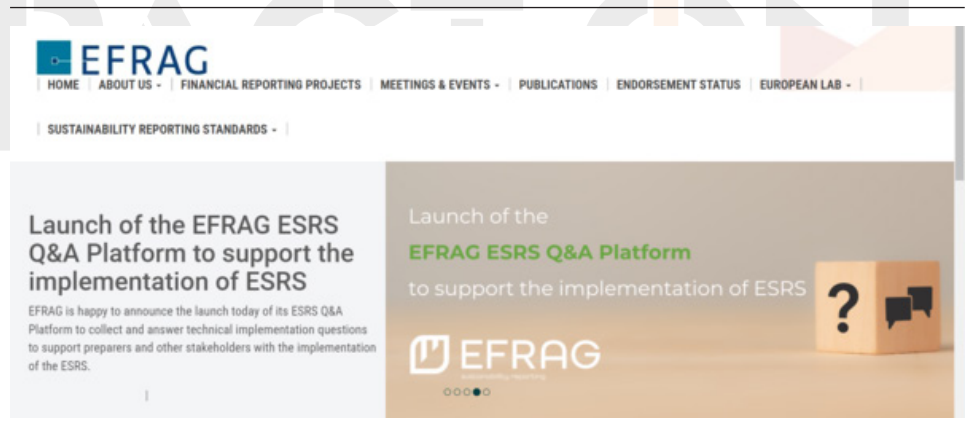


이런 흐름에 발맞춰, 유럽의 공시기준을 담당하는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기업이 EU 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에 따라 전환 계획을 공개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ESRS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전환계획 수립을 필수적인 공시 항목으로 두고 있다.

이미 영국은 2022년 전환계획태스크포스(TPT)를 출범하고 모범 사례를 반영해 개발한 TPT 공시 프레임워크를 같은 해 발표한 바 있다. 최종본은 지난 해 10월에 업데이트 됐다.

책임 투자자 이니셔티브인 UN PRI 또한 지난 3월 지속 가능한 경제 전환에 대한 민간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한 2030년 EU 정책 로드맵을 공개했다. 로드맵은 EU가 전환 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해야 할 주요 정책을 담았다. 한편, 네덜란드 최대 규모 자산 운용사인 로베코와 세계 6위의 미국 자산운용사인 인베스코가 전환 투자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로베코는 운영하는 아시아 채권 펀드를 전환투자 용도로 변경하면서, 지속가능한 전환이 이행되는 산업에 대한 투자 기회가 가장 많은 아시아와 신흥시장에서 전환 투자를 먼저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림) EFRAG 홈페이지



Editor's Comment

ESG는 점점 더 공시라는 규제의 틀, 그린워싱에 대한 법적인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ESG에 대한 법적인 규제와 리스크가 강화되는 것은 분명해보인다. 이 때문에 ESG의 제도화를 막으려는 기존 세력과 제도화를 앞당기려는 신진 세력 간의 다툼 또한 강해지고 있다.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가 'ESG는 무기화되었다'라고 말한 표현은 그런 점에서 적확하다. 18세기 산업혁명 당시를 연상해보면, 현 글로벌 시대상은 마치 '탈탄소 산업혁명'의 혼란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내 기업의 CEO들이나 산업 환경은 이러한 거시적 혹은 미시적 경제 움직임 측면에서 볼 때, ESG를 너무 좁은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다. 오히려 ESG라는 용어가 사고의 전환을 막고 있을 지도 모른다. 산업의 '전환(transition)'이라는 측면으로, ESG의 흐름과 궤적을 빠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